

2018년  
그리스도인 일체 기도 주간  
기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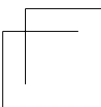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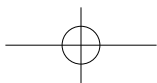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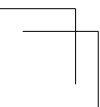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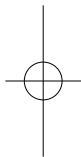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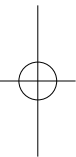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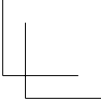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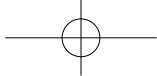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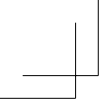
Your right hand, O Lord, glorious in Power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애굽기 15장 6절)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Your right hand, O Lord, glorious in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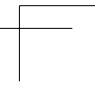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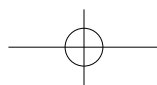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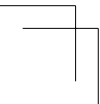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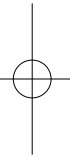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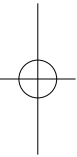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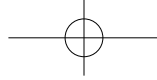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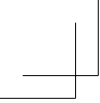
##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애굽기 15장 6절)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키는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사용되는 기도자료는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함께 제작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정교회가 기도자료집을 번역 출판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가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수합니다.



# 목차

|   |  |
|---|--|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  |
| 주제 성구 · 8   |  |
| 주제 소개 · 10  |  |
|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4                          |  |
| 일치 기도 예식 · 16   |  |
| 예식 소개 · 16  |  |
| 예식 순서 · 17  |  |
|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28                                      |  |
| 제1일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당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br>이다 · 28    |  |
| 제2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 30                     |  |
| 제3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 32                                |  |
| 제4일 희망과 치유 · 34   |  |
| 제5일 들어 보아라! 이 땅 저 멀리서부터 내 가난한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br>리는구나 · 36 |  |
| 제6일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38                                   |  |
| 제7일 가정과 교회 가족 건설하기 · 40                                   |  |
| 제8일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 42                       |  |
| 카리브 지역의 교회 일치 상황 · 44                                     |  |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년-2018년) · 49                   |  |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53                          |  |
| 4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54                           |  |

---

\*일러두기: 성경은 「개역개정」을 사용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일치 기도 예식서가 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을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을 주제로 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 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주제 성구

### 출애굽기 15장 1~21절 (개역개정)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와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 주제 소개

###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애굽기 15:6)

#### 카리브 지역

토착민들 가운데 한 부류, 곧 카리브인이라고 불렸던 칼리나고 사람들의 예전 이름을 따서 명명된 카리브 지역의 현실은 복합적이다. 지리적으로 광활한 이 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종족과 언어와 종교 전통을 지닌 도서 지역과 내륙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복잡하여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식민지 보호령부터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와 헌법 제도를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카리브 지역의 커다란 특징은 비인간적인 식민지 착취 사업이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공격적으로 무역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람과 강제 노동을 거래하는 가혹한 체제들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관행들은 먼저 그 지역 토착민들을 노예로 삼고 학살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멸시켰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 그리고 인도와 중국 출신자들과의 '계약 관계'로 이어졌다.

모든 단계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은 피정복민들에게서 불가침의 권리들인 그들의 정체성, 인간 존엄,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의 노예화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면서 인간 개인을 상품화하고 타인의 자산으로 삼는 것이었다. 노예들을 자산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의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는 문화적 종교적 실천과 혼인을 할 권리, 가정생활을 꾸릴 권리들에 대한 부정도 포함된다.

매우 안타깝게도 500년에 이르는 식민지와 노예 기간 동안 이 지역의 그리스도교 선교 활동은, 이례적으로 뛰어난 몇 가지 본보기를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비인간적 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러 모로 이를 합리화하고 강화하였다. 이 지역에 성경을 전해 준 사람들은 피정복민을 노예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성경을 이용한 반면, 노예가 된 이들은 성경의 감도(感導)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어 자유로 이끄시리라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

## 주제

현재, 다양한 전통을 지닌 카리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살이를 종식하는 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였다고 여긴다. 이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그들의 일치된 체험이다. 그렇기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출 15,1-21 참조)를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로 선정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노래는 억압에 대한 승리의 노래이다. 이 주제는 1981년 8월에 열린 카리브 교회 회의(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es: CCC) 연수에서 성가로 작곡되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이 지역 교회 일치 운동의 '찬가'가 되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카리브 지역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자유에 관한 노래가 있고, 노래로 이들은 일치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한번 현대의 도전들로 노예화의 위기를 맞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 받는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임에도 흔히 개인의 죄와 사회 구조적 죄 때문에 가려진다. 타락한 세상 속의 사회관계들에 인간 존엄을 드높이는 정의와 연민이 결여되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빈곤, 폭력, 불의, 약물과 외설물 중독, 그리고 고통, 슬픔과 고뇌는 인간 존엄을 일그러뜨리는 체험들이다.

우리 시대의 많은 도전들은 바로 식민지 과거와 노예 거래의 유산이다. 상처 입은 집단정신은 낮은 자존감, 범죄 조직과 가정 폭력, 훼손된 가족 관계와 관련된 현대의 사회 문제들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유산임에도 신식민주의 특징을 지닌다고 일컫는 오늘날의 현실에 의해서도 더욱 악화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 지역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이 빈곤과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여러 지역들에는 차별적 법률 체제가 잔존한다.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카리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하여 희망을 가져다준다. 이들은 상황에 따른 피해자가 아니다. 교회들은 이러한 공통된 희

망을 목도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이들,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함께 사목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성가 가사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자유와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네.”라고 노래한다.

### 성서에 관한 성서적 목회적 성찰(출 15:1-21)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세 시기, 곧 이스라엘인들의 이집트 생활(1:1-15:21),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15:22-18:27), 그리고 시나이 체험(19-40장)을 설명해 준다. 주제 성구인 모세와 미리암의 ‘바다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들을 상술한다. 이로써 첫 번째 시기가 막을 내린다.

### “이분은 나의 하나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15:2)

15장 1-3절은 하나님 찬양을 강조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15:2) 모세와 미리암이 이끄는 노래로써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방해받지도 좌절될 수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 어떤 힘도, 파라오의 병거도 군대도 빼어난 군관들조차도 당신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15:4-5 참조) 여러 수많은 전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찬양의 기쁜 외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심을 깨닫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데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기뻐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백성임을 깨닫는다.

###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15:6)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당신 적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 그리고 당신 백성에 대한 가없는 보호로 이해된다. 파라오의 결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심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고 폭력을 없애시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다.(15:10 참조) 이러한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불변의 사랑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것이었다.

해방은 민족에게 희망과 약속을 가져다준다. 민족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새날이 열렸기 때문에 희망이 된다. 이는 또한 약속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어떠한 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하시는 바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시는가?

어떤 교부들은 그 이야기를 영성 생활을 위한 은유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죄를 바다에 내던질 원수로 인식하였다.

“아시다시피, 우리 뒤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짓눌러 온 우리 과거의 모든 죄는 세례로써 물에 빠져 소멸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것들이 쌓이고, 그 위에는 더러운 영들이 올라타서 마치 기수와도 같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몰고 갑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이러한 영들을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홍해를 통하여 그랬듯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없애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하신 주님의 피로써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설교」 223E)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야기를 원수의 추격에 절망하기보다 희망을 지니고 인내하라고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세례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된 신원을 정립하도록 하는 핵심 사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홍해의 여정과 그리스도 백성의 세례 여정을 비교한다. 이 두 가지 해방의 여정으로 예배하는 회중이 생겨난다. 그렇게 모세와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유로이 경배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구원으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인들은 찬양의 노래로 일치를 이룬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

### 일치

출애굽기 15장은 일치의 길을 위하여 종종 공통된 고통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이스라엘인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에 근본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은 강생과 유월절(파스카) 신비에서 정점을 이룬다. 해방 또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 인간을 주체로 참여시키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화해의 교역을 공유하지만, 우리의 분열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과 사명에 방해가 된다.

##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2018년 일치 기도 주간의 기도 자료는 카리브 교회들이 준비하였다. 앤틸리스 주교회의(Anntilles Episcopal Conference)의 교회 일치 담당 주교인 킹스턴 대교구장 케네스 리처즈 대주교와 제라르드 그라나도 카리브 교회 회의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꾸려진 교회 일치 팀이 초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카리브 교회 회의의 지도자들과 앤틸리스 주교회의와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케네스 리처즈 대주교(Kenneth D. Richards, 앤틸리스 주교회의를 대표하여 초안 팀 담당 주교, 앤틸리스 주교회의 교회 일치위원회 위원장, 킹스턴 대교구장, 로마 가톨릭, 자메이카)
- 제라르드 그라나도(Gerard A.J. Granado, M.Th.<에딘버러 대학교>, 카리브 교회 회의 사무총장, 초안 팀 의장, 로마 가톨릭, 트리니다드 토바고)
- 루이스 리베라-파간 교수(Luis N. Rivera-Pagan, 뉴욕 프린스턴 신학 대학 교회 일치학 명예 교수, 침례교, 푸에르토리코)
- 커클리 샌즈 목사(Kirkley Sands, Ph.D., 코드링턴 신학 대학 교목, 성공회 서인도 교회, 바하마)
- 패트모어 헨리 목사(Patmore Henry, 카리브와 아메리카 감리교회 회의(Methodist Church in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MCCA) 총무, 안티과)
- 올루와케미 린다 뱅크스(Oluwakemi Linda Banks, Ph.D., 카리브 교회 회의 의장, 임상심리학자, 성공회, 앵글라)
- 니콜 포이어(Nicole Poyer, 트리니다드 토바고 테제 교회 일치 공동체 대표, 마트리 쿠라팅 신학대학원 석사 과정, 로마 가톨릭, 트리니다드 토바고)
- 글레나 스펜서 감독(Glenna Spencer, 카리브와 아메리카 감리교회(MCCA) 감독,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중앙위원회 전임 위원, 가이아나)
- 킹슬리 루이스 감독(Kingsley Lewis, Ph.D., 동인도 서인도 지역 모라비아 교회 감독, 카리브 교회 회의 전임 의장, 안티과)

- 엘비스 엘라히 목사(Elvis Elahie, M.Th.〈에딘버러 대학교〉, 트리니다드 토바고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rinidad and Tobago: PCTT〉 전임 담임 목사, 세인트 앤드루 신학 대학 명예 총장, 장로교, 트리니다드 토바고)
- 마조리 루이스 목사(Marjorie Lewis, Ph.D., 서인도 연합신학대학〈United Theological College of the West Indies: UTCWI〉 명예 총장, 자메이카와 케이맨 제도 연합 교회, 자메이카)
- 조지 물레인 목사(George Mulrain, Ph.D., 카리브와 아메리카 감리교회 회의 전임 위원장, 트리니다드 토바고)

일치 기도 주간을 공동 주관하는 교향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직한 국제준비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바하마의 나소에 있는 엠마오 센터에서 2016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국제준비위원회는 밴두 하우스에 위치한 폼페이 노예 해방 박물관을 방문하여, 바하마인들과 나아가 모든 카리브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기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제준비위원회는 나소 엠마오 센터에서 기꺼이 회의를 유치하고 친절하게 맞아 준 나소 대교구장 패트릭 핀더(Patrick Pinder) 대주교와 대교구에, 그리고 회의 기간 내내 편의를 제공해 준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지식과 지역 교회의 체험을 공유하여 주신

지역 교회 일치 지도자인 바하마 그리스도교 협의회(Bahamas Christian Council) 의장 램포드 패터슨(Ranford Patterson) 목사, 성공회 바하마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교구(Anglican Diocese of The Bahamas and the Turks and Caicos Island) 교구장 레이쉬 보이드(Raish Boyd) 주교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 일치 기도 예식

### 예식 소개

####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애굽기 15:6)

이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 성경과 세 쌍의 쇠사슬이 필요하다. 초안을 작성한 카리브 지역 팀은 이 상징물들을 예식 장소에 눈에 잘 띄도록 놓아둘 것을 제안한다.

성경은 카리브 교회들에게 특히 중요한 체험이다. 역사적으로, 토착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전해 주는 동시에 저지른 악행들을 겪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성경은 위로와 해방의 주된 원천이 되었다. 이처럼 전도하는 위력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각별히 강력한 표징이 된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성경을 회중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다른 책이나 책자보다는 그 성경에서 독서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쇠사슬은 노예살이와 비인간화와 인종 차별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상징이다. 또한 쇠사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서 떼어 놓는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 카리브 초안 팀은 예식에서 화해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진짜 쇠사슬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쇠사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튼튼해 보이는 사슬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식 중에 노예살이의 쇠사슬은 친교의 결속, 그리고 현대의 노예살이와 온갖 개인적 제도적 비인간화에 대항하는 일치된 행동을 표현하는 인간 사슬로 전환한다. 이러한 동작에 함께하도록 회중 전체를 초대하는 것이 예식의 필수적 부분이다.

카리브 초안 팀은 말씀의 선포 다음에 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부를 것을 제안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하는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를 성찰하며, 교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직면한 사회적 도전들을 극복하고자 협력하는 가운데 카리브 교회 일치 운동과 일치를 이룬다.



## 예식 순서

#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 + 인도자
- ◎ 회중
- 해설자

## 입당 성가

(지역과 형편에 맞게 선택)

(입당 성가를 부르면서 행사를 이끄는 이들이 들어오며, 이들에 앞장서서 한 명이 성경을 들고 들어온다. 예식 장소의 한가운데 경배 장소에 성경을 놓는다. 예식에서 성경 독서는 이 성경으로 선포해야 한다.)

## 환영사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일치 기도 예식을 위해 모여,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산과 인류 역사 안에서 해방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일치 예식 자료는 카리브 교회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카리브 지역의 그리스도교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이 땅의 원주민들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서 끌려온 이들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살당하고 쇠사슬로 묶여 노예화되었으며 불공정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식민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해방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여전히 위로와 해방의 원천이며,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해치는 현 상황들에 대처하도록 카리브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손으로 노예살이의 쇠사슬을 풀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바치는 기도의 주제인 일치를 표현하고, 인류 가족 안에서 사랑과 친교의 새로운 인간적 결합을 드러냅니다.

## 성령 청원 기도

(성령 청원 기도에 대한 응송은 노래로 할 수 있다.)

- + 카리브 지역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불을 당겨주시도록 성령님께 청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치의 연대로 하나 되게 하소서.

### ◎ 오소서, 성령님.

- + 저희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 ◎ 오소서, 성령님.

- + 죄의 속박에서 저희를 풀어주소서.

### ◎ 오소서, 성령님.

- + 나약한 저희를 도와주소서.

◎ 오소서, 성령님.

+ 저희가 당신 자녀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 오소서, 성령님.

## 찬가

### 화해의 기도

+ 우리는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노예정신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의 구원 권능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회중 가운데 세 명이 각자 쇠사슬 하나씩을 가지고 앞으로 나온다. 각각의 청원 기도와 응송을 마칠 때마다 쇠사슬을 하나씩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자비송을 부를 수 있다.)

+ 오 하나님, 인간 존엄을 저해하고 새로운 노예 형태를 강화하는 구조들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오 하나님, 저희 형제자매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소외시키며 차별하는 결정과 행위들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오 하나님, 저희를 서로 분열시키고 희망과 치유를 제한하는 두려움과 의심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힘, 저희 권능이시며 구원이 되셨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끄소서.

◎ 아멘.

### 하나님 말씀의 선포

+ 오 하나님, 인간의 억압에서 저희를 구원하시어

◎ 저희가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게 하소서.

+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의 종들 위에 비추시고

◎ 하나님의 법령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시편 119,135-136 참조)

### 출애굽기 15:1-21

+ [이 말씀을] 듣는 이는 해방될 것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편 118:5-7, 10-24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곤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넓은 들로 이끄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리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정의의 문을 열어라.  
그리로 들어가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리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찬성하나이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로마서 8:12-27**

+ [이 말씀을] 듣는 이는 해방될 것입니다.

- ◎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선포 전후로 적절한 복음 환호송을 부를 수 있다.)

### **마가복음 5:21-43**

+ [이 말씀을] 듣는 이는 해방될 것입니다.

- ◎ 하나님, 감사합니다.

### **강론/설교**

**노래**(악보, 하나님의 오른손)

# The right hand of God

Patrick Prescod

Noel Dexter: Jamaica

1. The right hand of God is writ-ing in our land,  
 2. The right hand of God is point-ing in our land,  
 3. The right hand of God is strik-ing in our land,  
 4. The right hand of Ggd is lift-ing in our land,

6  
 writ - ing with pow - er and with love; Our  
 point - ing the way we must go; so  
 strik - ing out at en - vy, hate and greed; Our  
 lift - ing the fal - len one by one; Each

10  
 con-flicts and our fears, our tri-umphs and our  
 cloud-ed is the way, so eas - i - ly we  
 self ish - ness and lust, our pride and deeds un -  
 one is known by name, and res - cued now from

13  
 tears are re - cord - ed by the right hand of God.  
 stray, but we're guid - ed by the right hand of God.  
 just are de - stroyed by the right hand of God.  
 shame by the lift - ing of the right hand of God.

© 1981 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es, P.O. Box 616, Bridgetown, Barbados, W.I. All rights reserved.

※ “하나님의 오른손” 가사

1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기록하시네.  
권능과 사랑으로 기록하시네.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  
우리의 승리와 눈물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기록하시네.

2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방향을 가리키시네.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리키시네.  
구름이 자욱한 길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헤매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3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을 치시네.  
시기와 미움과 탐욕에 맞서시네.  
우리 이기심과 욕망,  
우리 자만과 불의한 탐욕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쳐부수시네.

4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들어 올리시네.  
쓰러진 사람을 하나하나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심으로써,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알려지고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았도다.



## 5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치유하시네.  
찢겨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네.  
놀라워라 당신의 손길  
더욱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치유하시네.

## 6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씨를 뿌리시네.  
자유와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네.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당신 자녀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 되게 하소서.

## 사도신경

### 보편 지향 기도

- +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을 풀어주시어 우리가 사랑과 친교의 끈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 필요를 아뢰시다.

(한 사람씩 다음 기도를 바친다. 기도가 모두 끝나면 기도자들은 회중과 손을 맞잡거나 팔짱을 끼쳐 인간 사슬을 만든다)

- 1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건너도록 당신 백성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어 온갖 형태의 노예살이와 인간 존엄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소서.

-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2 풍요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 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이기심과 탐욕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용기를 주소서.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3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4 평화의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멀리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신 약속에 충실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당신과 화해하도록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 안에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불어 넣으시어 폭력을 거부하고 당신의 평화를 이루는 종이 되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5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나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가족 안에 거처하시며 저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어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셨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형제자매들과 친교의 결합을 굳건하게 하소서.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6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또 저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와 함께하시어 성령의 힘과 위로로써 저희가 당신 교회의 온전한 가시적 일치를 위한 노력에 방해되는 이기심과 교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 주님,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소서. 저희가 살리이다.

## 주님의 기도 (각자의 전통에 따라)

- + 우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칩시다.

(각자의 전통에 따라/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바칠 수 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에도 회중은 손을 계속 맞잡고 일치를 기념하는 친숙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노래가 끝난 뒤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 파견

- +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치를 이루었으니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 ◎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도다.

주님의 도유로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 됨을 알리며

억압된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해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 제1일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            |                                |
|------------|--------------------------------|
| 레 19:33-34 | 너희는 이방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 시 146      | 주님께서서는 이방인을 보호하신다.             |
| 히 13:1-3   |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다. |
| 마 25:31-46 |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

아이티는 첫 번째 흑인 독립 공화국을 수립한 뒤 자유를 찾는 노예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였다. 최근의 극심한 경제 위기 때문에 아이티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고향을 떠나 위험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냉대를 당하고 법률적 장벽에 부딪치기도 했다. 카리브 교회 협의회는 아이티 사람들에게서 시민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나라들에 대한 저항에 동참해 왔다.

### 묵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지냈던 기억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환대하여야 한다는 율법 가르침의 바탕이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배 기억은 곧바로 현대의 망명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증진하리라고 기대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체험에는 소외와 분리,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기억이 따라다닌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억에는 윤리적 의미가 함축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 주셨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의 선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이끌려 아낌없이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엄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로써 깨어진 인류 가족을 치유하도록 도와야 한다.

##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문화도 어떤 대륙도 아닌 모든 이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시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를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며  
형제자매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씨를 뿌리시네.  
자유와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네.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당신 자녀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 되게 하소서.*

## 제2일

#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창 1:26-28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시 10:1-10                 주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몬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눅 16:24-26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의 일종으로 착취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은 강제로 또는 핼에 빠져 성매매, 아동 노동, 장기 밀매로 유입된다. 이것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제적 산업이다. 카리브 지역에서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리브 개혁 교회들은 인신매매의 재난을 종식시키고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교육시키는 세계선교협의회와 카리브 북아메리카 선교협의회에 동참해 왔다.

## 묵상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에서는 흔히 이 심오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숨기거나 부정해 왔다. 하나의 예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의 존엄성이 부정되었다. 복음 메시지는 이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인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 곧 율법에 따라 사랑하여야 하는 이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존엄성을 평가 절하하던 사회 규범에 도전하셨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진 바울은 노예가 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하며 당시 사회 규범을 넘어 그의 인성을 단언하였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 다른 이들의 존엄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담대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바울 성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현대판 노예

살이를 종식시키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 기도

인자하신 하나님,  
인신매매의 피해자들 가까이 오시어  
하나님께서 그들 고난을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연민과 용기로 하나 되어  
어느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고  
모든 이가 자유로이 존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날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청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능히 하시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들어 올리시네.  
쓰러진 사람을 하나하나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심으로써,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알려지고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되었도다.*

## 제3일

#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출 3:4-10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박당한 이들을 풀어 주시네.  
시 24:1-6                   주님, 저희는 당신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옵니다.  
고전 6:9-20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마 18:1-7                   불행하여라. 걸림돌을 놓는 사람!

카리브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음란물은 인간 존엄성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를 상품화하고 음란물 중독자들을 옴아매고 건전한 애정 관계를 해친다.

## 묵상

출애굽기는 인간에게 속박당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였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어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노예살이에 속박당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여전히 듣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다. 성(性)은 인간관계와 친밀감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음란물로 오용하는 것은 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모두 노예화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에 무심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받고 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는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존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미소(微小)한 이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두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바라



시는 대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깨끗한 마음과 맑은 영을 주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소서.  
교회들이 당신 백성의 성화를 위한 일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치유하시네.  
찢겨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네.  
놀라워라 당신의 손길,  
더욱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치유하시네.*

## 제4일

### 희망과 치유

|            |                                   |
|------------|-----------------------------------|
| 사 9:2-7    | 그분의 권위가 계속 커져 나가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
| 시 34:1-14  |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
| 계 7:13-17  |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
| 요 14:25-27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

교회들은 카리브 지역의 폭력 문제에 대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살인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가정 폭력, 범죄 조직 사이의 대결, 그 밖의 범죄들에서 비롯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해와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 묵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당신의 교역을 통하여 밝혀 주신 나라는 성령 안의 공정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이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폭력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언자의 눈으로 보면, 빛은 깊은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비춘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가정 폭력과 조직 폭력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출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의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 사이의 분열이 희망의 전달을 가로막는 반대되는 징표가 되는 슬픈 현실이다.

그러한 슬픈 현실의 대척점에는 다양한 교회와 종파들 사이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추구가 있다. 갈등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를 위해 애쓰면서 화해의 표징을 세상에 보여준다. 특권과 지위의 논리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 타인과 그들의 공동체를 하찮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증언하는 이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양께서 성인들을 생명의 원천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세상에 필요한 평화이며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가져오는 것이다.

## 기도

모든 위로이시며 희망이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폭력을 이기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이 세상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징이 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방향을 가리키시네.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리키시네.  
구름이 자욱한 길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헤매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 제5일

# 들어 보아라! 이 땅 저 멀리서부터 내 가난한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 1:19-35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장서시고, 너희를 업고 다니신다.  
시 145:9-20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신다.  
약 1:9-11                   부자는 풀꽃처럼 스러질 것이다.  
눅 18:35-43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카리브 지역 경제는 전통적으로 유럽 시장을 위한 원료 생산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자립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세계 시장으로부터 개발을 위한 차입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차입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교통, 교육, 보건과 다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가 요구되었고,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카리브 교회 회의는 최근 이 지역의 부채 위기에 대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관계망을 통하여 가난한 이들을 원조하기 시작하였다.

## 묵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의 군중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 눈먼 거지의 부르짖음은 군중의 여러 소리에 묻혀 버렸다. 눈먼 거지는 정신도 산만해지고 당혹스러웠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먼 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말이다. 넘어지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에 그 거지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혼란과 혼돈의 일정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불일치 때문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군중 소리처럼 우리의 분열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잠식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 더욱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다. 불일치

의 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우리는 참으로 가장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식별할 수가 있다.

##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이제 이 세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그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해 주시고 그들을 들어 높이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서 들어 올리시네.*

*쓰러진 사람을 하나하나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올리심으로써,*

*모두가 자기 이름으로 알려지고*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받았도다.*

## 제6일

###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사 25:1-9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 82                       약한 이와 빈곤한 이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  
빌 2:1-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눅 12:13-21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국제적 은행 규제의 변화는 카리브 지역의 무역과 상업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아 왔다. 카리브 출신 해외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다. 가난한 이들이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얻게 하고자 카리브 교회들은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도입하였다.

## 묵상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탐욕의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신다. 이러한 경고에도 탐욕의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겨루는 경쟁의 논리를 도입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속에서 구별해 내지 못하고 세속의 분열적 경쟁 정신을 따르는 한 '재난을 당한 곤궁한 이들에게 피신처, 폭풍으로부터의 은신처'를 제공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다양한 교회와 교파들의 풍요로움은 우리 각자의 공동체에 많은 구성원을 속하게 하는 것, 또는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유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북'의 경제적 분열을 넘어 일치하는 온 세상의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애를 깨닫는다면 모든 이를 위한 경제 정의를 증진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용기와 힘을 주시어,  
지배와 억압의 상황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계속하여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의 일치를 기념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을 치시네.  
시기와 마음과 탐욕에 맞서시네.  
우리 이기심과 욕망,  
우리 자만과 불의한 탐욕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쳐부수시네.*

## 제7일

# 가정과 교회 가족 건설하기

|            |   |
|------------|---|
| 출 2:1-10   | 모세의 탄생                                      |
| 시 127      |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
| 히 11:23-24 | 모세의 부모는 그를…… 숨겼습니다. 글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
| 마 2:13-15  |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

카리브 지역에서 가족은 불행하게도 노예제도가 남긴 유산의 영향, 그리고 부모의 이민과 경제 문제와 가정 폭력과 같은 새로운 요인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카리브 교회들은 핵가족과 확대 가족 모두를 지원하는 데 애쓰고 있다.

## 목상

가족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분노한 지배자의 살해 명령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의 위험 속에 놓여 있던 모세와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성경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외부의 힘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밝혀 준다. 이 이야기들 또한 이러한 작은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마태오는 특히 시대의 풍랑 속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부성의 모범을 제시한다.

성경은 어린이를 은총이며 미래의 희망으로 본다. 시편 저자에게 어린이들은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들'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지원하는 가족 관계망을 이루어 살아가라는 소명을 공유하며, 어린이가 보호받고 자라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를 건설할 책무를 위하여 주님께 힘을 청한다.

## 기도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충실하나 죄 많은 선조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가정들과 공동체들 안의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에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기록하시네.  
권능과 사랑으로 기록하시네.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  
우리의 승리와 눈물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기록하시네.*

## 제8일

#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 사 11:12-13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적대하지 않으리라.
- 시 106:1-14, 43-48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도록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 엡 2:13-19            그분께서는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 요 17:1-12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카리브 교회들은 식민화가 그 지역 그리스도의 몸에 입힌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노력한다. 화해에는 흔히 참회, 배상, 기억의 치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침례교인들과 카리브인 사이에 있었던 사과와 배상 행위들이 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 화해의 표징이자 행동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 묵상

구원 역사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서 분명한 동기는 주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백성을 양성하시려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다. 주님과 맺은 거룩한 계약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백성의 양성은 주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예언자들은, 계약은 여러 사회 단체들이 정의와 연민과 자비를 특징으로 하는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을 이스라엘에게 거듭 일깨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새 계약의 인호를 마련하시면서 성부께 정성되이 바치신 기도는 당신께서 성부와 하나이듯이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임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성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영광은 세상이 생기기 전 성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영광과 같은 것이다.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늘 화해의 공동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정의와 평화 안에 살아가는 법을 보여 주는 강력한 표징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자 애쓴다.

## 기도

주님,

겸손되이 청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사랑을 전하는 사절이자 주체로서

교회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활동을 통하여

갈라진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땅에 씨를 뿌리시네.*

*자유와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네.*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당신 자녀들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 되게 하소서.*

## 카리브 지역의 교회 일치 상황

---

카리브 지역은 북쪽의 바하마에서 남아메리카 본토의 수리남,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카옌), 그리고 동쪽의 바베이도스에서 서쪽으로는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까지 펼쳐져 있다. 카리브 지역의 공통된 신원 의식은 그들이 공유한 식민주의, 외세의 착취와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뿐 아니라 지정학적 고려와 공동의 문화적 인식에 근거한다.

이 지역에서 일부 교회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는 식민지 경영의 시작과 초기 시대와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교회들은 이후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 선교 운동의 일환으로 전파되었다.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들은 비교적 최근에 카리브 전역으로 퍼져 나갔기에, 많은 나라와 지역 관할권 안에서 수많은 복음주의 연맹이나 협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카리브 교회 회의는 1960년대 교회 일치 운동의 강력한 선구자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 초 사회-문화적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때는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탈식민 시대였다. 이때는 자기 결정권과 개발과 새로운 형태의 자기표현을 향한 운동이 이 지역 전체에서 펼쳐졌던 시기였다. 이처럼 새로운 지역적 깨달음을 위하여 몇몇 교회들의 공동 대응과 기여로써 카리브 발전을 위한 그리스도인 행동(Christian Action for Development in the Caribbean: CADEC)이라는 기구가 조직되었다. 이는 카리브 교회 회의에 선행하는 기구로, 이후 카리브 교회 회의의 주요한 두 부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알려진 또 다른 부서는 교회 쇄신 기구(Agency for Renewal of the Churches: ARC)이다.

카리브 교회 회의 설립 모임이 1973년에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되었다. 설립 헌장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는 카리브 지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에, 역사, 언어, 문화, 계층, 거리가 만들어낸 과제들을 극복하고자 신학적 성찰과 영감과 협의, 그리고 협력 활동을 위한 이 지역 교회 협회에 동참할 것을

서약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증진, 주민들의 전인적 발전, 사회 정의와 모든 개인의 존엄을 확인하는 데에 깊이 참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정을 함께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하려는 우리의 체험을 나눌 것을 맹세한다.

카리브 교회 회의의 33개 회원 교회는 수많은 섬들과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본토에 걸쳐 네 가지 언어권(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속하는 매우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을 대표한다. 이 권역에는 카옌(프랑스령 기아나), 쿠바, 과들루프, 아이티, 마르티니크, 푸에르토리코가 포함된다. 카리브 교회 회의의 회원 교회들은 오랜 식민 경험이 가져온 분열이라는 유산에도 참다운 일치라는 카리브 지역 신원 의식이 있다는 공통된 확신을 나눈다. 이러한 신원 의식을 통하여 카리브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야 하고 그에 응답하여야 한다.

지역 교회 일치 운동 기구(Regional Ecumenical Organisations: REOs) 6곳 가운데 하나인 카리브 교회 회의는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구이며, 전 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역 주교회의를 통하여 지역 교회 일치 운동 기구에 창립 회원이 된 첫 번째 사례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메리카 교회를 주제로 1997년 개최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특별 총회 예비 문서 ‘의제 개요’(Lineamenta)에서는, 앤틸리스 주교회의가 카리브 교회 회의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것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다. 의제 개요에서 “친교의 영역과 방법”이라는 제목의 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교파들과 대화에 대한 더욱 큰 가능성에 대한 일례는 카리브 지역 주교들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카리브 지역 주교들은 그 지역에서 단일한 교회 일치 운동 기구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제4장, 제42조)

43년 이상 존립하면서 카리브 교회 회의의 회원 교회들은 신학, 그리스도인 교육, 통합적 발전, 청년과 여성 문제, 가정생활, 인권,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많은 계획들을 함께해 왔다. 카리브 교회 회의의 중요한 성취 가운데 일부로 미디어 채널 *Contact and Caribbeat*와 월간지 *Caribbean Contact*,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육 연재물인 *Fashion Me a People* 등이 있다.

카리브 교회 회의는 1983년에 그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교회 일치 운동과 사회 변혁을 촉진하기”로 재정립하였다. 그 뒤로 카리브 교회 회의는 전략적 접근 방법을 개발해 왔고 카리브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사회-경제 문제들과 사회적 병폐들에 통합적 계획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는 고질적 빈곤, 후천 면역 결핍증(HIV/AIDS)의 창궐, 마약 거래와 중독, 그리고 개개인들이 자연 재해나 폭력이나 일자리와 더 나은 생활 여건 추구를 포함하는 여러 이유로

강제 이주되면서 나타난 뿌리 뽑힘 현상 등이 있다.

카리브 교회 회의의 정책은, 회원 교회들이 기존 단체와 기관들을 통하여 지역 모임들에 이르기까지 더욱 깊이 교회로서 참여하고 상호 동반하여 주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인 지역 계획들(후천 면역 결핍증, 마약, 폭력, 가정, 식량, 뿌리 뽑힌 사람들)
-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빈곤 감소, 기획 기금 마련, 재난 대비)
- 후원과 홍보(대중 의식, 정보, 대화와 나눔)
- 국제 관계(지역 통합, 연대 방문)와 문화 행사

카리브 지역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주요한 지역 정부 간 조직들, 특히 으뜸 조직인 카리브 공동체(Caribbean Community: CARICOM)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한다. 또한 수십 년 이상 국제 연합(UN)의 여러 부서들, 유럽 정부와 북아메리카 정부들과도 함께 일해 왔다.

카리브 지역 교회는 위에 언급한 계획들에 더하여 이 지역의 국가교회협의회들의 더욱 넓은 관계망과 상호 동반을 위한 국가교회협의회들의 지역 포럼(Regional Forum of National Councils of Churches: NCCs)을 설립하였다. 카리브 지역 교회보다 수십 년 앞선 조직이었던 몇몇 국가 교회 협의회 - 예를 들어, 쿠바 교회 협의회와 자메이카 교회 협의회 - 가 했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2001년에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포럼이 소집되었다. 그 뒤 포럼은 2008년까지 해마다 개최되었다. 기구들에 배정되는 기금이 상당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이 포럼도 축소되어야 했다.

최근에 카리브 교회 회의 사무처는 회원 교회들과 협의 아래 교회 일치 운동의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더욱 강조해 나가고 있다. “봉사”(diakonia)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다소 간과되었다고 느껴졌던, 근본 안건인 “친교”(koinonia)를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안건들과, 또 “신앙과 직제”에 관한 안건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신학자와 성직자와 다른 이들 등 다양한 지위의 회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깨우쳐 주는 분위기에서 서로 만나는 “환영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어 2014년 12월에 교회 일치 만남과 대화를 위한 카리브 지역 센터(Caribbean Regional Centre for Ecumenical Encounter & Dialogue)가 출범하였다. 센터의 설립은 카리브 교회 회의와

수 세기의 역사를 지닌, 대중적으로는 성 베네딕토 산(Mount St. Benedict) 수도원이 라고 불리는 트리니다드에 위치한 유배자의 성모 대수도원(Benedictine Monastery of Our Lady of Exile) 수사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시험 사업이다(여러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펼쳐 온 사목 활동을 감안하면, 이 수도원은 이러한 계획을 위한 자연스러운 배경이요 선택으로 보였다).

또한 카리브 교회 회의는 예를 들어 테제 운동과 세계 그리스도인 포럼(Global Christian Forum: GCF)의 카리브 ‘헌장’과 같은 다른 교회 일치적 표현과 형태와 함께 새로운 참여를 해 왔다. 카리브 헌장은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카리브 교회 회의는 실제로 카리브 지역 세계 그리스도인 포럼의 주최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 왔다.

카리브 교회 회의와는 별개로 카리브 지역에 교회 일치를 위한 또 다른 기관들이 있다. 그러한 기관 가운데 자메이카에 위치한 서인도 연합 신학 대학(United Theological College of the West Indies: UTCWI)이 두드러진다. 서인도 연합 신학 대학은 여러 개신교 종파들의 공동 실험 사업이다. 흥미롭게도 서인도 연합 신학 대학은 이전에 신학교였던 성 미카엘 로마 가톨릭 신학 대학(Roman Catholic Theological College of St. Michael’s)의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들이 존립하는 수십 년 동안 매우 친밀하고 상호 깨우침을 주는 관계를 누려 왔다.

또한 더 넓은 지역 차원에서는 카리브 신학 대학 연합회(Caribbea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CATS)가 있다. 이 기구는 영어권의 두 주요 신학 대학인 서인도 연합 신학 대학과 성공회의 코드링턴 대학(Codrington College),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두 대학인 트리니다드의 성 요한 비안네와 우간다 순교자 대학(St. John Vianney and the Uganda Martyrs)과 자메이카의 성 미카엘 대학이 함께 협력하도록 해 준다.

스페인어권 카리브 지역 개신교 교회 일치 신학 대학을 보면, 푸에르토리코 복음주의 신학교(Evangelical Seminary of Puerto Rico)와 쿠바 마탄사스 복음주의 신학교(Evangelical Seminary of Theology of Matanzas)가 있다. 이 두 기관은 다양한 개신교 종파들의 공동 시험 사업이다. 현재 마탄사스 복음주의 신학교는 카리브 교회 회의 전임 의장이자 세계교회협의회 전임 회원인 카를로스 에밀리오 함(Carlos Emilio Ham) 목사가 이끌고 있다.

교회 일치 운동의 확장을 위한 카리브 지역의 위대한 선물인, 유명한 세계교회협의회 제3대 총무였던 필립 알포드 포터(Philip Alford Potter) 목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카리브 지역 교회 일치 운동의 상황을 완벽히 고려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존경 받는 기억인 포터 목사는 감리교 교역자이며 도미니카 연방 출신이다.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재임 시절에 포터 목사는 남아프리카의 비윤리적인 인종 격리 정책 정권과 싸웠다.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세계교회협의회 초청을 수락하시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본부를 역사적으로 방문하신 것도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 간 교회 일치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현재 세계교회협의회에는 140만 명의 카리브 지역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13개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고 추산된다. 포터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카리브 교회 일치 운동가들은 더 넓은 세계 교회 일치 무대에서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메이카의 네빌 칼럼(Neville Callam) 목사가 있다. 현 침례교세계연맹(Baptist World Alliance: BWA) 사무총장인 칼럼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오랫동안 크게 존경받았다.

(\* 이 문서는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초안 작성을 위하여 모인 카리브 교회 일치 팀의 단독 권한과 책임으로 작성되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

1968-2018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양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벤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무어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샹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콩고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 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 2007년 “귀족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 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줘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 (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4기)

### 수강생 모집

- 일 시: 2018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예정)
- 수강비: 10만원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02-743-4471

#### 강사(\*변경 가능성 있음)

|        |                                   |
|--------|-----------------------------------|
| 송용민 신부 | 독일 베텔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 손정명 수녀 |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수원가톨릭신학대학 하상신학원 교수 |
| 안교성 목사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 서원모 목사 |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 양현혜 목사 |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전 철 목사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한신대학교 교수            |
| 신정훈 신부 | 독일 뮌헨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
| 박준양 신부 |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
| 박태식 신부 |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
| 임종훈 신부 |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
| 조기연 목사 |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장동훈 신부 |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
| 장운재 목사 |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안상준 사관 | 명지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
| 김영일 목사 | 건국대학교, 강남대학교 명예교수 외               |

**커리큘럼** (\*변경 가능성 있음)

| 강의                             | 주제와 내용                                 |
|--------------------------------|--|
| 1강                             |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
| <b>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b>        |  |
| 2강                             |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br>:정교회와 천주교회    |
| 3강                             |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br>:개신교회, 종합토론  |
| 4강                             |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br>:교회일치운동         |
| <b>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b>        |  |
| 5강                             |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br>:‘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
| 6강                             |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br>: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
| 7강                             | “누가 교회인가?”<br>: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
| <b>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b> |  |
| 8강                             | 오늘의 경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
| 9강                             | 오늘의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                      |
| 10강                            |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

**201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출판협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18, "*Your right hand, O Lord, glorious in power (Ex 15:6)*",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weeks-prayer-doc/rc\\_pc\\_chrst\\_uni\\_doc\\_20170613\\_week-prayer-2018\\_en.html](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weeks-prayer-doc/rc_pc_chrst_uni_doc_20170613_week-prayer-2018_en.html)